

“엔케이맥스, 이사회 정족수 미달”... 기업회생절차 무산되나

사내·외 이사 총 8명 이사회 구성
통보없이 등기임원 사임·복귀 반복
“안전 부결 하려 했는데 사임처리”

소액주주연대 “박 대표 해임 촉구
고의적 공시 지연, 벌점 20점 받아”



엔케이맥스 박상우 대표이사

최근 엔케이맥스의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지만, 7인의 등기임원 가운데 3인만이 참여해 정족수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정상적인 개회가 아니었고, 기업회생절차는 박 대표 개인이 밀어부친 결정이었다”며 “이사회 절차가 잘못됐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이사회 무효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사들 갑작스런 사임 ‘의혹’

18일 엔케이맥스 이사회 내부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엔케이맥스는 내부 임원인 박상우 대표이사과 조용환 운영총괄 부사장, 김용만 연구개발 총괄 전무 외에 송영호, 신용열, 정민영 등 총 6인의 사내이

사와 2인의 사외이사 등 총 8명의 등기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려면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해당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엔케이맥스의 경우 조용환 부사장의 사임으로 4인이 모여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갑작스런 열린 이사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인 8일에 사내이사인 신용열 부사장, 송영호 대표이사 사임 처리됐다. 전인오 사외이사 역시 같은 날 개인사유로 자진 사임한다는 공시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측이 사임에 대한 통보나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사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이사회를 진행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개회가 무산이 되자 회사는 사임처리 했던 신용열과 송영호를 복귀시키고 17일을 이사회 소집 날짜로 재통보했다. 17일 이사회소집에는 신용열 부사장에게도 소집통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사는 16일자로 신용열과 송영호를 다시 사임처리했다는 이유로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는 박 대표를 포함 3인만이 참여했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기업회생절차가 결의됐다. 이때까지 신용열과 송영호는 자신들을 사임처리했다 복귀시켰다 반복한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사임 처리된 이사 A씨는 “이번 회생 안전은 부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임 처리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알고 보니 주총에 선임된 이사들 모두 등기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번 사임에도 본인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사임 처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와 처음 미팅 당시에도 기업회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 회생을 쉽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며 “기업회생절차는 채권단,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식 반대매매를 맞아서 주식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려

고 하는지 이해가 안갔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당하며 지분율이 12.94%에서 0.0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정정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해제·취소 등으로 지난 3월 25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기업회생절차 무효소송 낼 것”

기업회생절차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회사측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엔케이맥스는 영업 적자 폭을 점차 키우며 최근 3년간 총 15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상태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엔케이

맥스의 자본총계는 1120억원, 자본금은 414억원 규모다. 하지만 1000억원 가량의 종속기업처분투자이익을 빼면 실제 자기자본은 자본금을 크게 밑도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A씨는 “당연히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박 대표가 마음대로 진행해 공시까지 내 버린 상황”이라며 “정상 절차도 아니고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동의를 해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측에 이사회 절차가 잘못됐다는 공문을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사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엔케이맥스 소액주주연대는 “회사의 미래와 수많은 주주들을 지키기 위해 박상우 대표의 빠른 해임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연대는 “한국거래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회사는 충분히 공시할 시간이 있었으나 박 대표의 고의적인 지연 공시로 한 번에 20점의 벌점이 부과된 것”이라며 “이 상황에도 박 대표는 본인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니면 투자를 받지 않겠다며 거절하며 우리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세경·최빛나기자 seilee@metroseoul.co.kr

스마일게이트, RPG 부진... 6년만에 실적 ↓

지난해 홀딩스 영업이익 23.7% 줄어
매출 80%까지 RPG 매출 28.9% ↓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3813억원, 영업이익 4905억원을 기록했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조3813억원, 영업이익은 23.7%감소한 4950억 원을 기록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건 2017년 이후 6년만이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주요 자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의 부진한 실적의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는 스마일게이트 그룹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이미지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 6671억원, 영업이익 38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3%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트아크’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의 경우 매출 5237억원, 영업이익 2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9%, 26.1% 감소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난해 개별

실적은 매출 6103억원, 영업이익 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64.4%, 62.37% 증가한 수치다.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및 스마일게이트스토브 합병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글로벌 게임 시장 침체로 자사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며 “올해는 신작 출시와 로스트아크 대규모 업데이트 등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실적 부진은 지난해 ‘2023 지스타’에 전시된 ‘로스트아크 모바일’ 출시로 이복이 풀렸다.

로스트아크 모바일 출시 일정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개발 진행 중이지만 출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프라인 확대를 노리는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다양한 퍼블리싱 타이틀을 준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유플러스, IPTV서 미드 3종 독점제공

CSI·FBI 등 매주 금요일 공개

LG유플러스가 자사 인터넷TV(IPTV)에 ‘CSI: 베가스’, ‘FBI: 인터내셔널’, ‘NCIS: 하와이’ 시즌3 등 미국 CBS 콘텐츠를 국내 독점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CBS는 2000년대부터 ‘CSI: 과학수사대’, ‘FBI’, ‘NCIS’ 등 범죄수사물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 ‘CSI: 베가스’, ‘FBI: 인터내셔널’, ‘NCIS: 하와이’ 시즌3 등은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새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CSI: 베



가스’, ‘FBI: 인터내셔널’, ‘NCIS: 하와이’의 시즌1·2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며 고객 경험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시즌3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MESIM gSaaS’ CSAP SaaS 표준등급

메타빌드 연계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메타빌드의 연계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MESIM gSaaS’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미들웨어부문 국내 최초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

MESIM gSaaS는 메타빌드의 연계 통합미들웨어(ESB/APIG/IoT/Data

HUB/AI플랫폼) 제품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인프라/시스템 종류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MESIM gSaaS는 성능, 확장성, 보안성, 모니터링 등을 최적화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번 등급 획득으로 공공

기관 서비스 제공 자격도 갖췄다.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는 “메타빌드의 AI LLM 모델, AI 플랫폼 및 연계통합 미들웨어 제품기술은 지원 품질·성능·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만 매출이 49% 이상 증가한 451억원을 달성해 초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디젤 공장 준공

연산 13만톤 규모 상업가동 돌입

HD현대오일뱅크가 바이오 디젤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바이오 항공유, 선박유 생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연산 13만톤 규모의 바이오 디젤 전용 공장을 상업 가동 하고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산공장 내 1만2000평 규모의 바이오 디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은 동·식물성 기름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연료로 석유 기반 연료와 성상이 유사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특히 바이오 디젤은 바이오 항공유나 바이오 선박유 등 바이오 기반 연료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연료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현재 4%인 의무 혼합 비율이 2030년에는 8% 수준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HD현대오일뱅크의 바이오 디젤 공장은 국내 최초로 초임계 공정이 도입된 바이오 디젤 공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초임계 공정은 기존 바이오 디젤 공장보다 고온·고압 조건에서 촉매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용 원료인 대두유와 팜유는 물론 팜 잔사유와 같이 산도가 높아 처리가 까다로운 비식용 원료도 투입 가능해 기존 공법 대비 식량 자원의 존도를 낮출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